

14강 복음의 역설 (12:1~13:13)

(읽을 말씀: 11:6~10)

오늘의 포인트

- 약함과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고 확립하라.
- 복음이 승리주의 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을 이해하라.
- 그리스도인은 승리주의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라.

1. 바울 사도가 환상과 계시 체험을 자랑하다(12:1~6).

- 맥락 — 바보연설이 계속된다(11:1~12:13)

(1) 계시 체험 자랑을 주저하는 바울 사도

(12:1~2)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바울 사도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다 →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이 하는 방식으로 ‘부득불’ 자랑한다.
-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입신, 무아경과 같은 체험을 자랑함으로써 자신들을 일반 교인들과 차별화하곤 하였는데,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이 그들처럼 체험을 자랑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체험 자랑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2) ‘그 체험’

(12:2a)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14년 전’의 체험
 - 바울 사도는 14년 전, 고향인 다소에 있었거나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 안디옥에 있었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 체험은 처음으로 말하고 있다.
-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삼층 구조로 이해하였다.
 - 첫째 하늘 — 대기권
 - 둘째 하늘 — 성층권
 - 셋째 하늘 — 하나님이 계신 곳 — ‘낙원’(4)
-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체험
 -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것인지, 영혼만 들어올려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 사도 요한의 밧모섬 체험과 비교 — 요한은 이 체험을 쓰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바울의 체험은 오직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3) 체험은 판단의 기준인 가르침과 삶을 대신할 수 없다(12:6).

(12: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 바울 사도는 이 체험 하나로 거짓 사도들의 체험 자랑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 그러나 만일, 이런 ‘바르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한다면, 고린도교회는 곧 다시 같은 문제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 사도가 그랬듯이,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참됨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체험’을 사용할 수 없다.
- 너희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로 판단하라.—가르침과 삶!
- 환상이나 계시 체험은 가르침과 삶을 대신할 수 없다.

2.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다(12:7).

(12: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반전—바울 사도는 엄청난 체험과 대조되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환상과 계시 체험을 자랑한 것이다.
- 3인칭에서 1인칭으로—‘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다!

(1)계시와 가시는 하나의 패키지로 왔다.

- 바울 사도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엄청난 계시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 계시 체험이 육체의 가시의 원인이고 육체의 가시는 계시 체험의 결과였다.
- 엄청난 계시 체험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도 함께 주셨다.

(2)사탄의 사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 육체의 가시 = 사탄의 사자(messenger)
-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욘 1: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3)육체의 가시의 정체

-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 고린도교회의 대적들—‘사자’라는 말에 주목, “사탄의 일꾼들”(11:15)
 - 유대주의자들
 - 육체적 연약함이나 질병: 안질(갈 4:15), 뇌전증(간질)—‘가시’라는 말에 주목
- 바울을 낮추고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
-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계시의 체험이 주어진 것의 결과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이다.
-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하고 질병과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증거라고 가르치던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이다.

3. 바울 사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12:8~9)

(1)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즐거워하지 않았다!(12:8)

(12: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사도는 괴로움으로 이것이 떠나기를 세 번 간구했다.

- 기독교 신자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 기독교 신자는 ‘인내’의 미덕을 수양하는 사람이 아니다.
- 기독교는 고난 자체를 미화하지 않는다.

(2)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설명(12:8~9)

(12:8~9)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간구를 거절하셨다!
- 그리고 설명을 주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 이 설명이 고린도후서의 절정이고 메시지의 핵심이다.
- 바울은 약했고, 육체의 가시로 괴로웠으며, 삶에는 환난이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많이 받아야 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육체적 시련과 물리적 폭력으로 몸은 쇠약해졌고, 명성은 갈가리 찢기었으며 그의 메시지는 거부되었다.
- 바울은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끼어서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포로였다.
-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약함(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도록 하 시려고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때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물질적 부요를 누릴 때?
 - 심각한 질병으로 건강을 잃었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지 못했으며, 물질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때?
-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만큼 인생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내 삶에서 이것만 없으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신다.
- 성도는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그리고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고 배운다.
- 약함은 핸디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조건이다.

4. 바울 사도가 약함을 자랑하다(12:9b~10).

(1)약함을 기뻐한다(12:10).

(12: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 바울 사도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 바울 사도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2)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12:9b)

(12:9b)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
- ‘머물게’ = 장막을 치고 거하시게(장막으로 덮게)—성막과 관련된 용어

(3)내 약함이 곧 강함이기 때문에(12:10)

(12: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약한 그 때에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알려진 유명한 목사나 사역자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의 고난받고 가난하고 약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오셔서 당신의 임재는 물론 당신의 능력을 머물게 하신다.

(4)사도됨의 표는 ‘모든 참음’에 있다!(12:11~13)

(12:11~13)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 바보 연설을 마치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다.
-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 + 표적, 기사, 능력 행함이다.
- 사도됨의 증거는 지극히 큰 계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는 그의 약함이다.

(5)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가진 족장이 아니라 무자한 아브람과 불임의 아내 사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강성한 이집트 민족이 아니라 노예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

예수님은 잘 알려진 학식있고 권세있는 자들이 아니라, 무명의 무학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이 아니라, 극단적 민족주의 유대인 바울을 부르셨다.

5.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13:4)

(13: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의 역설의 절정—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 죽음이 우리의 몫이라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6.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경건을 살라는 소명(12:14~13:13)

-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참 경건을 보여준다.

(1)성부: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12:14~19)

바울 사도가 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다(12:14; 고전 3:1).

(12:14)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너희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다.)

돈 문제가 개입될 때, 어린 아이같이 영적으로 미숙한 고린도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서 사례를 받지 않았고 도리어 주고 베풀었다.

영혼을 위해 재물과 자신을 허비하는 바울 사도의 기쁨(12:15)

(12:15)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으나

거짓 사도들과 달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의 돈주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생각했다.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재물과 자기 자신을 허비했다고 고백한다.

(재물을) '사용하고' = 허비하고; 사치스럽게 낭비하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허비하도록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다.

“내가 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었다.”(12:19; 13:10)

(12:19) 너희는 이 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13: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성자: 심판의 시간이 온다(12:20~13:4)

-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성자께서 오실 때 행해질 심판과 같이, 바울의 세번째 방문은 심판의 방문이 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다.”(12:20~21)

(12:20~21)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 바울 사도의 세번째 방문은 심판의 방문이 될 것이다.
- 그러나 그가 이 방문에서 원하는 것은 회개한 고린도 사람들과 기쁨으로 해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13:1~4)

(13:3~4)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 고린도 사람들의 요구

- “당신이 참 사도라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보이라.”
- 바울 사도의 대답
 - 강하신 그리스도는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
 - 나도 지금 약하지만 세번째 방문할 때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강할 것이다.

(3)성령: 심판을 준비하라(13:5~9)

-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바울 사도의 세번째 방문을 준비해야만 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 “너희 믿음을 시험하라.”(13:5)

(13:5)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연 참된 구원얻는 믿음을 가졌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유일한 증거이다.
-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리스도를 모신 자를 안다.
 -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는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 것이다. 하지만 너희 안에 나를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몰라 보는 것이다.”

바울 사도: 고린도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위한 간구(13:9)

(13: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영적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간구는 그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7. 마지막 명령과 축복(13:11~13)

(1)다섯 가지 명령(13:11)

(13: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 기뻐하라—고린도 교회가 하나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바울 사도의 기대와 신뢰를 보여준다.
- 온전케 되라—만신창이가 된 고린도교회가 잘못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기도
- 위로를 받아라—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상처를 싸매고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바램
- 마음을 같이 하라—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분열된 교회가 이제 사도적 진리의 하나됨을 이루라는 바울 사도의 명령
- 평안하라—살롬을 이루라!

(2)약속(13:11)

(13: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 거짓 복음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와 치료약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아는 넘치고도 깊은 즐거움이다.
-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건강과 부를 약속해주는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3) 축복(13:13)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 교회의 소망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오늘의 적용점

- 약함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 하나님은 은혜와 가시를 함께 주신다.
 -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하다.
 - 우리의 고난, 부적당함, 무능함, 실패, 두려움은 장애가 아니라 조건이다.
 -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는 복음은 우리를 자아 중심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십자가의 약함 안에서 드러난다.
 - 우리는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따라가는 약한 자들이다.
 - 강하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 ‘지극히 큰 목사’를 청빙하려는 교회의 태도는 합당한가?
 - 강한 자로 살아가라는 승리주의 정신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 것인가?